



# 너희는 거듭 났느냐?

부산 선교부장 한 인상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2개월의 공부를 끝내고 임지에 도착하는 선교사들은 미숙하고, 소년티를 벗지 못한 채 불안올 가득 담고 한국 땅에 첫발을 내 디딤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선교 사업을 끝마친 선교사들은 역시 조금은 피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기쁨을 지닌 표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주의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복음의 위대한 힘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가 다져지고 쌓이노라면 마침내 승영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삶 그것이고 생존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교육은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가르침과 다스림은 인내로써 전해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확신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봅니다. 2년 동안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원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까지 저들은 기도하고 일하고 때로는 상심하고 다시 도전하는 일을

수없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매일 거듭나고 자 하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불완전한 자의 왕국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더라도 살고 닦아 온전을 이룬 자라야 그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엘머서 5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길잡이로 삼고 싶습니다. 이 14절의 말씀 중 "교회의 형제들아"라는 것이 형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 읽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보라 교회의 한 인상 형제여 내가 네게 묻노니 너는 영적으로 거듭 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니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네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엘 5 : 14)

저는 매일 부끄러움으로 몸둘 곳을 몰라 당혹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새롭게 도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환하는 선교사의 원숙한 모습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

###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1월 28~29일 양일간 서울 스테이크는 1와드에서 78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가 내한하여 모든 모임을 감리했다.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신권 지도자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 옥환 형제는 1년 목표 설정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제2보좌인 서 희철 형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실례와 시청각 자료로서 상세히 설명했고 4와드 김 용일 감독은 제사를 장로로 승진하기 위한 준비와 실제적인 지도 방법을 차트를 그려 설명했다. 상계지부 김 병희 형제는 비활동 장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는 의론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파이안스 장로는 구체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훈련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일생의 목표 설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이 나를 어떻게 말해주기를 원하는가”하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말씀하는 파이안스 장로와 통역을 맡은 이 호남부장

고 질문을 던져 대답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본 대회가 시작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구도자를 인도한 딸과 아버지의 개종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장로 신권을 소유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제의 이야기, 귀한 선교사의 말씀을 들은 후에 파이안스 장로 부처의 말씀을 들었다.

파이안스 장로는 “모든 성도는 선교사적인 자세로 선교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상호부조회 합창단이 한국 고유 의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번 대회에는 1070명의 성도가 참석했고 새로이 장로 12명, 대제사 1명이 탄생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신권 지도자



## 부산 선교부 산하 지방부장단 세미나 개최

부산 선교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산하 5개 지방부의 지방부장단을 초청하여 2박 3일간 부산 해운대 극동 호텔에서 지방부장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 인상 선교부장 감리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는 말씀 주제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장 재환, 김 백주 두 선교부장 보좌는 가정 복음 교육, 회원선교 프로그램, 각종 모임의 진행 등 특히 금년

에 강조되어야 할 부문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각 지방부에서는 지난 1년간을 통하여 자랑스러웠던 활동과 부진했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또한 새로이 발족된 관리 감독단 한국 사무소의 기능과 변경된 기록 및 재정 보고서의 절차에 관하여 서기부문 담당자인 최 동현 형제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저녁에는 우정을 돈독히 하는 모임을 가져 서로의 경험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간증 모임을 갖고 역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개봉지부 탄생

서울 서 스테이크 개봉지부가 1977년 12월 4일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에서 11번째로 탄생했다.

개봉지부는 지역내에 사는 20명 성도들을 위하여 11월부터 지역 예배를 보다가, 12월 4일 스테이크 대회를 기해 정식으로 지부로 승격되었다.

초대 지부장에는 서울 제9와드 감독단 제2보좌였던 최 남용 형제가, 제1보좌에는 손 재정 형제, 제2보좌에는 성 선모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현재 개봉지부에는 3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고 있으며 최 남용 지부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해 강한 지부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개봉지부가 담당하게 될 구역은 개봉동, 오류동, 서면 등이며 모든 성도가 이곳에 거주하는 분을 많이 소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광명 국민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50미터 떨어진 이층 건물에 있다.

개봉지부 성도들





## 복지 선교사의 활동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 12 : 31)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 : 19)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모사야 4 : 26)라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벽안의 자매 선교사들이 있다. 보건 선교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복지 선교사는 현재 서울 선교부에 8명, 부산 선교부에 2명이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복지”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의 복지 선교 활동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수준에까지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 복지 선교사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교회 집회에 있어서의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참석율 증가에 대한 제언, 비활동 회원의 우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가정복음교사나 방문 교사가 훌륭히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와 주는 방안 등을 통해 교회의 모든 회원과 지도자들을 돕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조직되어 있는 복지 사업 위원회를 도와 복지 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회원들에게 복지 원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들은 협조와 봉사를 아끼지 않고 한국 땅에 주님의 시온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 7 : 18)라는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지 선교사들이다.



복지 선교사의 활동 모습

복지 선교사의 시청각 교육 모습

## 경전 퀴즈 대회

지난 1월 21일 서울 제1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년회가 주최한 경전 퀴즈 대회가 열렸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8개 와드/지부에서 15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참여하여 평소에 쌓은 경전 지식을 발휘하였다.

이날 출제된 내용은 주로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문제들이었는데 출전한 각 와드/지부 회원들은 모두 놀라운 암기력을 발휘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순서로 신앙 개조 암기 대회에서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구도자가 신앙 개조 13조를 완전히 암기하여 많은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대회에서 신학원 중등부 팀에서 최우수 상은 잠실지부, 우수상은 4와드가, 장려상을 상계지부가 차지했으며 집사반의 최우수 상에 4와드가, 우수상에는 잠실지부가, 장려상을 상계지부가 차지했다.

퀴즈에 푼 기울이고 있는 성도들



## 엘마 소니 장로 별세

지난 1977년 11월 27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인 엘마 소니 장로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소니 장로는 총관리 역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아 25년간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였고, 1976년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보강되었을 때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

김블 대관장님은 추도사에서 소니 장로를 “위대한 신권 지도자이며 유우머가 넘치는 명량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누구와도 쉽게 사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변화하는 시대에 살면서 폭넓은 삶을 영위한 소니 장로는 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지도자의 한 분이다.

소니 장로는 1884년 3월 5일 유타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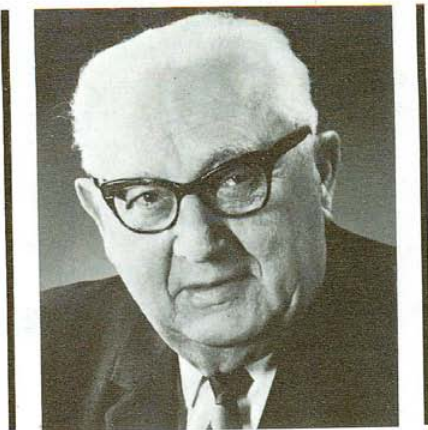
## 화양지부 개설

지난 1월 15일 서울 스테이크는 성동구 화양동에 새로운 지부를 개설하고 화양지부로 명명했다.

이 지부는 지난 15일 이 호남 서울 스테이크 부장과 두 보좌 그리고 역원 및 회원 등 4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지부의 지부장은 제1와드 감독단 제2보좌로 수고하던 박 광식 형제가, 제1보좌는 전 종열 형제가, 제2보좌는 박 승환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1와드와 8와드에서 편입된 회원으로 구성된 이 지부에는 현재 8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고 엘마 소니 장로

서 닐스 크리스찬과 리스 피터슨 소니의 6 자녀 중 쌍둥이의 한 아들로 태어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브리감 영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1910년 영국에서 2년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의 교회 경력으로는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스테이크 부장 등으로 부름을 받아 봉사했고, 십이사도 보조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12년 로간 신전에서 제비바 발렌타인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5 자녀를 두었다.

화양지부 성도들

